



## 서른번째 이야기

### 서로 격려하며

[빛진 자⑥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후기]

 동남아 테이블에서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결정한 후 9명의 팀원이 구성되었다. 토요일기도모임을 마치고 함께 모여 찬양을 연습하고 네 번의 Zoom 기도회를 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인도네시아 반자루바루에서의 컨퍼런스와 졸업식에 참석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웃리치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두 구절의 말씀을 주셨다. “너희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10:24)” 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함께 모여 준비하면서 팀원들을 위해, 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했다. 5박 7일간 9명이 하나 되어 움직인 여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10월 24일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여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 부부와 Zoom 기도회 때 만났던 로널드, 데이비드 목사님을 만났다. 항상 기도하고 줌 기도회에서 만난 덕분에 반갑고 기뻐다. 자카르타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반자루바루로

이동하여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는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BEE 사역자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사역자 이름과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서 더욱 반가웠고, 기도지에 실린 세미나의 현장 가운데 계신 사역자들과의 만남은 중보기도의 힘을 더욱 느끼게 했다.



셋째 날인 10월 26일 BEE 컨퍼런스와 졸업식에 참석했다. 안지민 권사님의 ‘BEE와 비전’ 프리젠테이션과 반상섭 팀장님의 ‘BEE KOREA 현지화 사례와 중보기도 테이블 소개’도 있었다. 통역도 없는 상태에서 종일 이어지는 컨퍼런스와 졸업식에 몸은 피곤했지만 그들의 축제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큰 기쁨이 전해졌다. 우리가 인니어로 준비한 ‘꾸마우 찌따 예수(나의 피난처 예수)’와 ‘엘 사다이(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그들의 축제를 축하해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31명의 DPM 졸업식은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다. 한껏 멋을 부리고 참석한 졸업생들과 그의 가족들, 계속 사진을 찍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귀한 열매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 부부의 수고가 피부로 느껴졌다. 한 명의 사역자들을 세우

기까지, 새로운 그룹이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의 시간이 있었을까...

몇 년 전 CGN을 통해 사역이 소개되었던 시파용, 글로리아 사역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세 시간의 졸업식을 활기차게 진행한 사회자가 글로리아였음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은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던 그녀를 마침내 조우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시파용, 글로리아 사역자 부부가 집으로 우리 팀을 초대해 주었다. 바로 전날의 졸업식 사진을 현수막에 걸고서 우리의 방문을 크게 환영해주었다. 대학생 삼 남매가 모두 DPM 과정을 졸업했고, 가족 모두가 BEE 졸업생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들 부부의 헌신과 가족의 사랑과 함께 BEE가 연합하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BEE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다. 다시 한번 BEE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현지 학생들, 사역자들과 우리 팀이 하나 되어 함께 온전한 축제를 누렸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함께 춤추고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서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환대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



다음 날은 반자루바루에서 버스를 4시간 정도 타고 무아라울랑이라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도 BEE 세미나가 열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며, 재생산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시골 교회에 사용한지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잔뜩 쌓였고, 튜닝조차 되지 않아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건반과 기타가 있었다. 우리 팀이 그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를 내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예배였다. 이 산골에서 BEE 세미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나누는 여러 분들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했다.

서둘러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한 청년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왔다. 이 청년은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다가 감전 사고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 팀은 청년의 마비된 오른편에 손을 얹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청년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다음 방문지인 하띵인 지역에서는 경찰 공무원인 인도자가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식에 참석했다.

영적 공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BEE 사역자로 수고하는 젊은 사역자를 통해 산골 깊숙한 곳에서도 차세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BEE의 라구 시리즈가 인도네시아 산골로 전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칼리만탄 반자루바루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 강문종 장로님께서 “Knowing what God’s will is”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고 우리는 특송을 했다. 준비한 두 곡 인니 찬양을 여러 번 사용하게 하셔서 이제는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온다. 현지인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사를 하고 두리안을 먹었다. 이들의 사랑이 전해진 두리안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평생 먹을 두리안을 그곳에서 모두 먹은 것 같다.



자카르타 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웃리치의 시간을 묵상하였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 주님만을 찬양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9명 모두가 하나 되어 인도네시아의 사역자들을 격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아직도 계속 귓속에서 맴돈다.

“꾸마우 찐따 예수스 슬라마냐”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글쓴이 이승혜 권사]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남편(장영호 집사)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기도하며 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남편을 따라 BEE 토요기도모임에 나온 후 BEE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

BEE 소식

---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11월11-12일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양재 토요 비 기도모임 7주년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